

데스크시각

정기태



C·라이트 밀스(Mills, Charles Wright)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통렬히 파헤쳤던 사회학자다.

은 카스트로 혁명을 쿠바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석한 'Listen, Yankee'다.

'Listen, Yankee'와 한국

한 느낌은 여전히 인상 깊게 남아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자금(昨今)의 행태를 보면서, 나는 밀스의 책 제목을 다시 떠올린다.

우리는 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추잡하고 더러운 싸움을, 그 진흙탕엔 살바도, 규칙도 없다.

이다. '들어라, ×××들아.' '×××'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시길.

고통스런 내일은 당신 책임

밀스는 지식인들에게도 '종립적 관찰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행동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그의 진단과 견해는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한국사회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많다.

타락한 선거풍토, 조폭 같은 정치관을 개혁되어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낙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지에서 오는 온갖 위험과 불행한 잘못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밀스의 충고를 훗날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시설

獨島담화, 日 "국내용"비하는 모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독도문제에 대해 선언적인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한일간 독도분쟁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오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고 자주독립과 역사주권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정면대응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내용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국가수반은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상태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 함말치다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국교정상화 회담 당시 김종필 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간에 "독도를 꼭파해버리는게 어머니냐"는 의견까지 오고 갔을까.

그러나 노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일본측 반응은 우리국민을 모독하는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국내용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탈피하고 자주독립과 역사주권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정면대응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내용이었다.

21세기의 한일관계는 단교(斷交)나 전쟁이 불가능할 만큼 복잡적이고 긴밀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는 독도문제가 '분쟁지역'으로 알려져서는 안된다.

DJ 6월 방북, 국민염원 한데 모아 주자

지난 24일 평양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수용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6차 회담재개나 남북관계 진전에 애쓰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밝게 하려는 유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한창 성장할 나이이므로 연골조직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는 마라톤과 같은 힘든 운동은 절대하지 마라

않고 있다. 햇볕정책의 공로는 뒷전인 채 과거가 논란으로 남·남 갈등도 만만치 않다.

역설적으로 이같이 악화한 한반도 정세가 DJ 방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험과 철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DJ 방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방북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 특사인지 민간인 신분으로 백의종군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해야 한다.

하이힐은 신은머 가슴이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두드러진다. 종아리가 가늘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無等鼓

최신 새로운 하이힐인 '플랫폼 슈즈'가 미국과 유럽 도시의 거리를 장악했다고 한다.

하이힐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높아 보이라는' 설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 높아지는 것은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이힐을 신으면 가슴이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두드러진다. 종아리가 가늘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이힐의 사회적



"하이힐은 다리 건강에 해롭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전에 높아지려는 사회적 동기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은펜칼럼

차영호



국·공립은 물론이고 지역의 시·도립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회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다.

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 최상의 해결방식이다. 전속단체를 쥐어짜려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민간단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연중 수시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체제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기고

김원식



성인병과 심장병의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운동부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막연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연령에 맞추어 신체수준이나 몸매에 맞는 처방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좋다.

폐지구력 운동으로 권장되는 것은 걸기·달리기·줄넘기·수영·에어로빅 댄스·배드민턴·자전거타기 등이며 각종 구기스포츠 종목과 병행하면 흥미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청소년 건강 미래의 재산이다

는 시기이다. 10대라 함은 일반적으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일상 패턴을 보면, 학교에서 시작되어 방과 후의 과외활동 연속으로 충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는 것이 좋다. 만18세 이하의 폴코스 마라톤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중음식점 금연구역 설치 의무화해야

최근 모처럼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갔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중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4명이 들어와 옆 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한 입산부는 자리에 앉으려다가 남편을 설득, 식당을 나갔다.

공연예술이 생기를 찾으려면

시의 지원을 받는 전속단체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할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도 현상 유지를 하려다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실적은 미미한 부실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작품을 생산하는 전속단체 없는 문화공간은 재야무리 최신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특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문화공간들은 창작의 요람이자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가 되어야지 돈벌이 수단인 대여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주민 편의 위해 개방한 운동장 깨끗이 사용하자

많은 학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학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